

近刊 獸醫學文獻 紹介

The Onderstepoort Journal of Veterinary  
Research, Volume 53., 1986  
(Onderstepoort 獸醫學 雜誌 第53卷)

이 책은 남아프리카 共和國의 農務 및 給水部 산하에 있는 Onderstepoort 獸醫學研究所 (Veterinary Research Institute, Onderstepoort) 에서 發行하고 있는 獸醫學에 관한 정기 간행물인데 이번에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1986년도에 제53권 제 1 호 (3月號) 로 발표된 것이다.

이 책의 發行人은 同 연구소의 소장인 Dr R. D. Bigalke로 되어 있으며 이번에는 獸醫學 전문분야별 研究論文 11편이 발표되었는데 총 62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호에는 기생충학 관련 논문이 7 편, 세균학 관련 2 편, 바이러스학과 독성학 관련 논문이 각 1 편씩으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진드기 매개성 리케치아에 의한 *Cowdria ruminantium* 에 대한 *Amblyomma hebraeum* 진드기에 의한 난계대 전파모형과 同 질병 및 진드기에 관련된 면역학적 진단방법 즉 효소연계 면역흡수 검정법에 의한 항원 및 항체 증명 (일명 엘라이자법) 에 관하여 다루었으며 그 밖에 *Rhipicephalus evertsi* 진드기 및 동 진드기에 의하여 유발되는 진드기 마비증 (tick paralysis) 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보고한 바 있으며, 그 밖에 *Chrysomya* 속 쉬파리 (blow-flies) 의 분포, 밀도, 습성 등 생태에 관한 연구보고와, 개에 있어서의 *Encephalitozoon cuniculi* (토끼에서 뇌염을 일으키는 원충의 일종) 감염증에 대한 면역반응 그리고 쌍시목에 속하는 외부기생성 위생곤충인 *Simulium chutteri* 에 대한 바실러스속 세균을 이

용한 생물학적 방제에 대한 평가 등이 흥미롭게 기술되어 있다.

세균학 관련 논문은 두편 모두 예방백신에 관한 내용인데, *Pasteurella haemolytica* 에 대한 다價백신 (polyvalent vaccines) 의 사용에 따른 양과 소에 있어서의 면역반응 그리고 *Clostridium chauvoei* 백신의 반합성 배양기를 이용한 생산 및 그러한 백신의 감량투여에 대한 실험동물 (기니픽 및 소) 에 대한 면역시험이 보고되어 있다.

독성학에 관련된 논문으로는, 유독성 식물인 *Pteronia pallens* 에 의한 양에 있어서의 hepatotoxicosis 에 대한 증례보고를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바이러스에 관련된 논문이 게재되어 있는데, 아프리카의 야생동물의 일종인 양과 비슷한 Jaagsiekte 라는 동물의 폐렴 병변조직으로부터 바이러스를 분리동정한 결과를 볼 수 있는데 연구결과는 남아프리카형의 렌타이 바이러스 (lentivirus) 로 보고되어 있다.

남아프리카 共和國의 Onderstepoort 獸醫學研究所는 역사도 깊을 뿐만 아니라 動物의 寄生虫性 및 傳染性 질병연구에 좋은 연구결과를 많이 내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動物用 醫藥品 · 飼料添加物の  
畜 · 水産物에의 殘留와 그의 分析法  
(近代出版, 1985年版)

이 책은 일본의 東京에 있는 財團法人 畜産物 生物科學 安全研究所에서 편찬한 것으로 編輯委員으로는 米村壽男, 内山 充, 吐山豊秋, 城戸靖

雅 등이며 近代出版에서 출판한 獸醫學 관련 전문서적이며 앞으로 각종 물질특허제도 등과 관련하여 관련 수의학계 및 동물약품업계, 사료업계, 축산물 및 수산물에 대한 생산, 가공, 품질관리, 유통관리 기타 각종 개발 및 연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직종의 수의사들에게 좋은 지침서가 될 것으로 사료되어 본편에 소개하고자 한다.

이 책은 총 339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5장과 부록으로 되어 있다.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하여 보면, 제 1장에 藥物의 畜·水産物에의 殘留를 家畜과 물고기로서 대상을 구분하여 기본적 사항을 논술하였으며, 제 2장에 藥物殘留의 意義에 대하여 용어의 定義로부터 시작하여 economic poison, 첨가물과 오염물, 안전성, 잔류의 검토방법, 잔류허용농도, 실질 안전량의 개념, 무잔류 규제와 식품위생, 무잔류 규제에 의한 검출 하한, 잔류실험의 재현성 등에 관하여 기술하였다.

제 3 장에는 藥物의 體內 動態에 관해서 생체측 가축 및 물고기 체내에 있어서의 흡수, 분포, 대사 등 약물의 동태에 관해서 설명되어 있다.

제 4 장에서는 殘留試驗法에 대하여 우선 총론적 해설과 잔류시험과 체내동태에 대한 해석, 축체 및 우유, 알, 물고기에서의 잔류에 대한 검출 및 정량법 그리고 그 성적결과에 대한 해석 등을 개론적으로 설명해 놓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제 5 장에 各種 藥物의 分析法에 대하여 미생물학적 검정법, 물리화학적 정량법, 면역학적 측정법 등 기술적인 면에 대한 세부각론과 기타 약물 성분별로 각종 분석법에 대한 세부적 해설이 게재되어 있다.

한편, 이 책에 있어서의 또 다른 특징은 부록편에서 볼 수 있는데, 첫째로 <1구획 모델 혈장중 농도 시간 곡선의 회귀 프로그램>이 실려 있어 BASIC 언어를 사용하는 각종 전산기 및 퍼스날 컴퓨터에 직접 응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으며 필요에 따라 동 전산화 프로그램을 변형하여 여러가지 목적으로 활용범위를 쉽게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부록편의 마지막 부분에는 현재 일본에서 통용되고 있는 動物用 抗生物質과 合成抗菌劑에 대한 리스트와 그에 대한 略語가 表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참고로 하기에 유용하다.

다만, 이 책에서 언급하는 法律과 각종 規程 등은 현행 日本에서 유효한 것일 뿐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알아 두어야 할 것이다.

## The Book of the Horse (A QED Book, 1986年版)

이 책은 말(馬)에 관한 전문서적이기는 하지만 꼭 獸醫學에 관한 전문서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대학의 수의학과에서 말에 관하여 질병 이외의 일반사항을 배울 기회가 없고 졸업후에도 말에 관련된 각종 임상의 기회나 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할 기회가 거의 없다시피한 우리나라의 수의사들에게는 좋은 기본서가 될 수 있을 것 같기에 여기에 소개하고자 한다.

특히 내년도에 있을 1988년도 서울 올림픽 경기대회에 대비하여 승마경기 및 근대 5종 경기대회에 우리 수의사들이 검역(수입마 검역 및 재수출 검역)과 진료 및 위생관리 뿐만 아니라 마체검사 등 각종 전문분야에 관련되게 될 것이므로 참고로 알아 두어야 할 사항이 많은 것으로 사료된다.

이 책은 영국의 London에서 1979년도에 QED Book에 의하여 판권등록이 된 바 있으며, 미국에서는 1982년도에 초판이 발행된 바 있는데, New York의 Bookthrift marketing 사에 의하여 Exeter Books로 1986년도에 재판이 간행된 것이다.

Pamela Macgregor-Morris에 의하여 편집감수를 받고 Jane Starkey에 의하여 기술적인 면의 감수를 받았으며, Peter Churchill 등 9명이 공동편집하였다.

총 208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천연색 사진

을 포함하여 사진 및 그림으로 편집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이해도 쉽고 보기도 좋은 책이다.

총 12개의 chapter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요 내용을 요약해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제 1 장에는 말의 起源에 대하여 재미있게 풀이 나가고 있으며, 제 2 장에는 馬와 人이라는 제목하에 말과 사람과의 관련성과 사용목적 특히 군마로서의 이용과 사역용으로서의 말의 이용에 대하여 역사성과 흥미를 겸하여 강조 하였다. 제 3 장에는 말의 식별과 감정을 위한 각종 특징 등에 관하여 기술되어 있는데 모색에 관한 표현이나 몇가지 특징기술에 있어서는 FEI (국제마술연맹) 규정과 꼭 일치하게 논술되어 있지는 않다. 제 4 장에는 말의 형별과 품종에 관한 혈통 등이 도표와 사진을 포함하여 잘 설명되어 있으며, 제 5 장에는 마필의 구입시 유의 사항, 제 6 장에는 말의 육종과 번식, 제 7 장에

는 말에 대한 조련과 조교, 제 8 장에는 승마의 기본기술에 대하여 해설하고 있고, 제 9 장에는 말에 대한 일반관리, 제 10 장에는 경마를 포함한 오락과 스포츠, 제 11 장에는 역사상 유명한 명마들에 대한 이야기와 각종 기록 등이 정리되어 있으며, 제 12 장에는 말에 관련된 전문용어가 해설되어 있다.

말의 질병과 위생에 관하여는 별도의 전문서적을 반드시 참고로 하여야 한다. 이 책에 있는 내용만으로는 질병과 위생에 관하여는 너무나 간단하게 기술되어 있으므로 수의사가 아닌 축주 또는 마필에 관련된 사람에게는 좋은 기본참고서가 되는 책이지만, 마필의 임상을 위하여는 기본적 참고사항만 가지고는 불충분하므로 반드시 수의학 각 분야의 전문서적을 참고로 하여야 할 것이다.

(資料提供：家畜衛生研究所 姜英培)

■ 海外文獻抄錄 ■

Amitraz藥의 犬毛囊虫治療效果  
Amitraz and canine Demodicosis

J. Bussieras and R. Chermette,

JAAHA 22: Nov/Dec. 1986.

現在 우리나라에서 개의 毛囊虫感染症治療를 위해서 일차적으로 선택되는 미국 업존社의 Mitaban®은 Amitraz를 19.9% 함유하는 농축액으로서 물 2 gallon에 10.6ml들이 한병을 희석하여 최종 농도가 280ppm이 되도록 하고 매 2주일마다 목욕시키는 방법이 보편적이다. 이렇게 하였을 때에 구토, 소양감 및 결막염 등의 부작용이 드물게 목격된 바 있었다. 그런데 이약 Amitraz를 처음 개발한 영국 Boots社의 첫 야외적응시험을 의뢰받고 실시한 바 있는 프랑스 Alfort Ecole Nationale Vétérinaire기생충교수인 저자들은 업존사가 권장하는 치료법은 원래 자기들이

권장했던 바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異論을 제기하였다. 즉 Amitraz의 최종농도를 500~1,000ppm으로 하고, 매주일마다 목욕시키되 솔질을 철저히 하여 농포를 터뜨릴 경우 아무리 重症의 全身性 감염이더라도 부작용없이 치료가 되며 장기간 동안(업존사의 경우 보통 3주이상)의 항생물질 병행투여가 필요치 않다고 하였다. 실제에 있어 500~1,000ppm의 0.25~0.50 liter 용액이 소요된다. 여기에서 소동물 임상가가 고려해야 될 사항은 Amitraz는 단지 피부에 기생하는 Demodex나 귀에 기생하는 Otodectic marge의 치료에만 유효한 것이며, 농포성 피부염이 합병되었을 경우는 매일 피부손질과 항생제의 전신적인 투여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건강한 개의 피부에도 평상시 毛囊虫이 기생하고 있으나 면역성 방어기능이 저하되었을 경우 증상이 발현되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치료시에 면역기능 증강제인 Levamisole의 투여가 권장된다.

(서울大 獸醫大 韓弘栗 抄)